

(주)한독자동기

국내 포장기계 제작·개발 선구

성력화·국산화 제품 개발에 주력

금성기계로 출발

최근 우리 주변에는 원조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를 어느 한 분야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개발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 포장기계의 제조역사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다종 다양한 업체가 생겨난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가지들이 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장이란 개념과 함께 단순히 필름 류나 종이류를 가지고 돌돌마는 형태의 전 근대적인 포장기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포장기계 제작의 역사는 1940년대 초반이후 포장과 관련한 단체가 생겨 잠시 포장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도 했다는 문헌상의 기록도 있지만 실제 현대적 의미의 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50년대부터이다.

이때만 해도 고품질을 중심으로 한 포장이 주를 이루었으며 분체나 액체를 포장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었다.

본격적인 포장기계 제작의 역사, 즉 국내 포장기계 제작의 뿌리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40년전으로 거



한독자동기 전경

슬러 올라간다.

포장기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것은 1954년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금성기계주식회사가 창설되면서부터로 그때만 해도 규모나 외형면에서 제를 갖춘 것은 이 회사가 처음으로 반자동 정제포장기를 개발,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국내 포장기계 제작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금성기계는 낙후된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여 1958년에는 정제 인쇄기 및 캡슐 포장기를 개발하여 보급에 나섰는데 당시 개발된 기계들은 수동식으로 자

동화를 추구하는 지금으로서는 기계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들 기계의 개발은 우리 포장기계 제작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내 선두주자로서 오로지 좋은 기계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금성기계는 1963년 공장을 종암동으로 이전하고 정통 포장기계 제작메이커로 자리잡는 기틀의 마련과 함께 제품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튜브 충전 실링포장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1965년에는 분말 포장기를 개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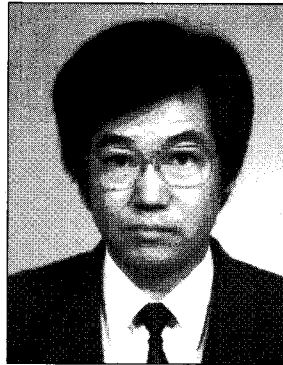
생산하기 시작했다.

66년에는 수제품(박카스) 자동충전기 개발에 성공하여 박카스 포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때 정제인쇄기를 일본으로 처녀 수출하게 되었다.

결국 10년만에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인정받아 외국으로의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기술력 및 가격 등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10년만에 수출물고 터

개발에 불을 당기기 시작한 금성기계는 72년 필로우 포장기를 국산화 하였고 74년에는 공장을 종로구 송인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꾀함과 동시에 종합포장기계 제작메이



(주)한독자동기 홍영표 대표

커로써 기틀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75년에는 일본 나고야의 도요기계와 협력하여 분말 포장기를 고급화시켰으며, 다음해 금성기계주식회사를 한독자동기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77년에 들어서면서 분말류의 포장기계를 기본으로 연구한 결과 액체류를 자동충전, 실링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으며, 80년에는 기술력의 진

일보를 위해 일본 도끼와포장기사와 기술협력을 맺었다.

한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오던 한독자동기는 83년 상공부로부터 품질향상 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며, 84년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김포공장을 신축하고 김포시대를 염과 동시에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정회원으로써 활동하게 됐다.

86년에는 스틱포장기(고속 고품물) 개발을 완료하고 실용신안 제30681호로 등록하고 다음해에는 액체 성형포장기의 개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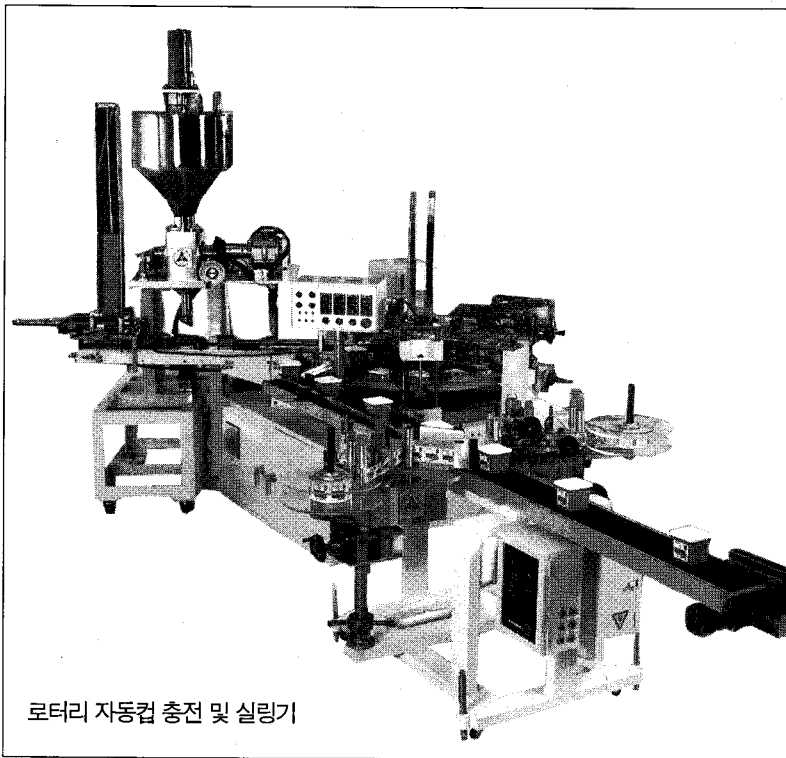
89년에는 한독자동기에서 (주)한독자동기로 상호를 변경하고 홍영표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현대식 포장기의 개발을 목표로 자동화 성령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였다.

같은해 한독자동기는 서울팩 89에 자체 개발한 필로우 고속 자동기 등을 출품해 업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그 명성을 높였다.

한독자동기는 계속된 개발의지를 통해 각종 전시회에 신제품을 선보여 국내 포장기계 제작업체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91년에는 카토닝 자동포장기를 개발하였고 92년에는 나이지리아 및 베트남 등에 포장기를 수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렸다.

특히 이때는 국내 포장기계 제작업체들은 제살각기식의 출혈경쟁을 일삼아 어려움을 부채질 하고 있어 수출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하나의 맥에서 갈라져 나온 줄기들로 한독자동기에서 기술을 배워 새로 시작한 업체들이 많았다.

한독자동기는 결국 기술자를 양산



로터리 자동컵 충전 및 실링기

하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해 왔지만 이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93년에는 서울에서 김포로 완전히 이전하고 소련, 인도네시아에 포장기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림과 동시에 로터리 급대 자동포장기를 개발, 포장기 시장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게 되었고 정부에서 국산기계의 수요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화표시 원화대출 품목에 12품목이 등록됐다.

또 올해에는 중국 북경에 영업사무소를 개설하고 중국지역에 대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현지공장을 창설함으로써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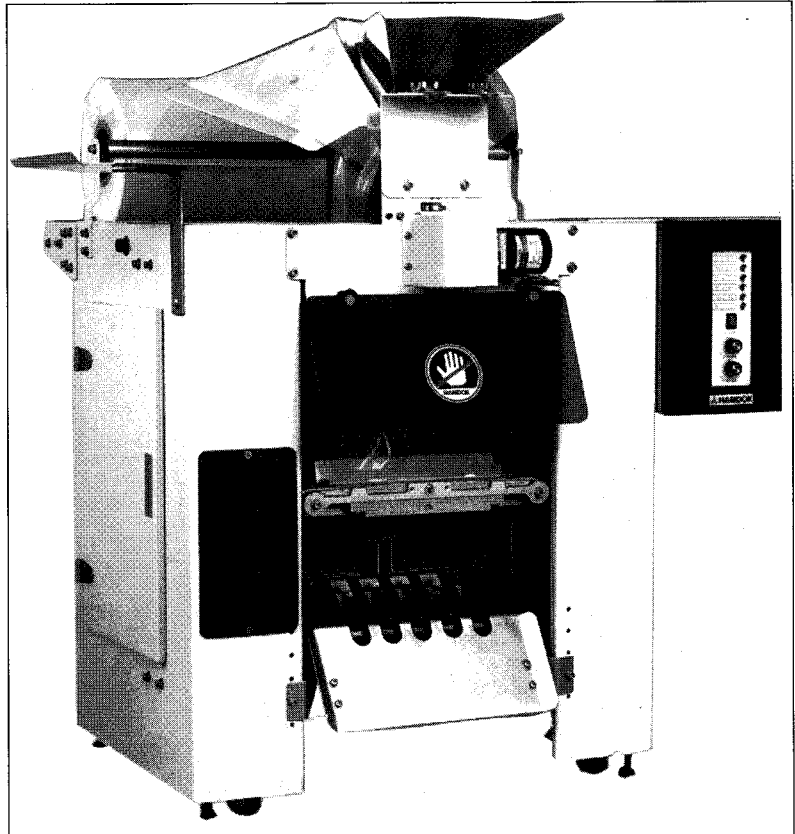
한독자동기에서는 현재 분말 및 액체 등 각종 포장기계는 어느것이나 제작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르트 다품종화에 따른 변화추세에 맞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전천후 기계의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고히물 고속 자동포장기, 버티컬 스낵 자동포장기, 로터리 급대 자동포장기, 컵실러 자동포장기, 만능 자동포장기, 고히물 4면 자동포장기, 자동정렬라인, 스틱 자동포장기, 로터리 자동 컵 충전 및 실링기, 분말·액체·정제·장류 자동포장기 등으로 어떤 형태의 포장기도 생산할 수 있다.

‘외국과 경쟁에 이길 자신’

“국내에서의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요?”

한독자동기 홍영표 사장은 “일본 미국의 시장은 절대 난공불락이 아니며,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아무리 크다해



각종 장류를 포장하는 기계

도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국산 기계의 수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외국 시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라 말했다.

홍 사장은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외국의 정보에 빨라야 하기 때문에 자주 외국에 들러 새로운 제품 정보 및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수출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92년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주관으로 북미 기계류 수출조사단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뜻밖에도 50만달러 상당의 식품포장기를 수주하기도 했다고 밝히는 홍 사장은 이는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한 국내 기계업체의 대미 수출의 청신호라고 힘을 주었다.

이때 홍 사장은 미국 포클랜드에 있는 식품가공기 생산업체인 윌스메탈

사와 협력, 윌스메탈사는 식품가공기를, 한독자동기는 식품포장기계를 각각 맡아 미국시장을 공략하기로 협정을 맺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서로간의 시장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장점을 살린 기계로 시장을 공략하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지만 미국은 분당 100봉 정도를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한독은 분당 200봉까지 포장할 수 있는 고속 포장기를 이미 개발해 놓아 가격 및 성능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독자동기는 54년 설립된 이래 두 차례나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가 다시 재기한 국내 포장기계 업체의 선두주자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및 식품용 포장기계를 국산화해 삼성제약 등 제약회사와 삼양식품·농심 등 라면회사에 공급,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해 이 제품의 국산화율을 70%까지 올렸다.

국내 포장기계 전체의 국산화율이 30%선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회사의 국산화 개발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홍 사장은 "적어도 세계 기술조류에 적용하려면 두개 정도의 신제품 개발에 나서야 하나 현재는 운영자금 마련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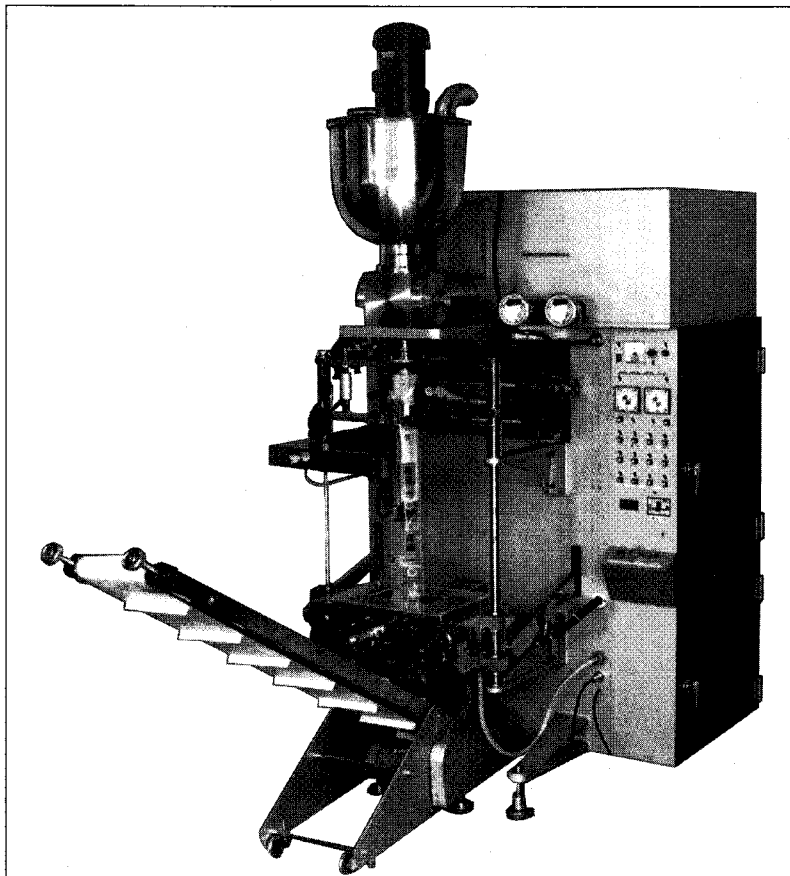
따라서 홍 사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에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또 기업이 원하는 때에 적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산화 개발업체를 보호해 주는 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포장기계 뿌리로서의 자부심 보다는 좀 더 나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자 목표라는 한독자동기는 자신들로 인해 성장해 오는 후발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 포장기계 업체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상대는 무수히 밀려오는 외국의 업체들이지 국내 업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조속히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오선진 기자



한독이 자랑하는 만능자동포장기

한독자동기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도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및 식품용 포장기계 국산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경주,
이 분야에서 국산화율 70퍼센트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홍영표 사장은
일본·미국시장도
절대 난공불락이 아니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산기계 수출의 길을 크게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진시장동향에 대한
빠른 정보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이
요청된다고 강조한다.